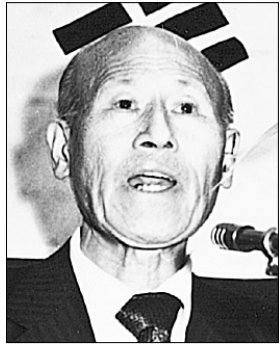


# 장경호·서경수·김기추 거사 '조명' "시대와 호흡하는 인재양성에 앞장"

## 대한불교진흥원, 9~10일 한국 대표 재가 거사 3인 조명 발표회

유마 거사, 방 거사, 부설 거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재가불자 3인의 삶을 조명하고 불교가 나아가길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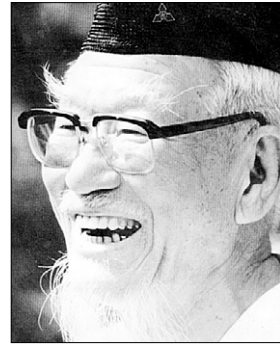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9월 9~10일 다보빌딩 3층 다보원 법당에서 창립 43주년을 맞아 재가불자 3인 조명 특별발표회와 '세상을 위한 불교'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 장경호 거사.



해안 서경수 거사.



백봉 김기추 거사.

조명할 예정이다.

서경수 거사는 한국 불교학 연구의 거목으로 불교근대화 담론의 방향과 소재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서 거사는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 불교연구를 위한 '불교백년사편찬위원회' 설립, 근대 불교에 관한 연구 활성화와 선구적 역할을 했다.

이어 10일 개최되는 '오늘의 호국' 토론회에서는 21세기의 현대적 상황과 시대정신에 따라 호국불교의 방향과 차원을 고민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자로선 이한구 교수(성균관대), 이남국 대표(좋은마을운동)가 참여하고 우희종 교수(서울대), 김재원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철 상임이사는 "9월을 '대원문화의 달'로 지정해 내년부터는 매년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 불교의 세계화, 불교문화 포교를 위한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흥원의 설립취지를 살릴 것"이라며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재가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주인공으로 불교포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난해 거사들을 되돌아보고 미래 한국불교의 실천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 8~15일 다보빌딩 3층 법당과 로비에서는 거사 3인 관련 사진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02)719-2606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한국을 대표하는 승만보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108인회(회장 김인숙), (사)지혜로운여성 여성인재개발센터(센터장 황수경) 여성리더십교육 1~5기 졸업생 80여 명은 8월 29~30일 충주 석종사(선원장 혜국)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여성불자108인회와 여성리더십교육 졸업생들은 일제시,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의 법문, 박광서 교수의 '종교차별의 현실과 불교여성지도자의 역할' 강좌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 김인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가정주부다. 가정을 비우고 사찰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줘서 감사하다. 행사를 통해 가정의 화목을 위한 지혜를 얻어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단연 혜국 스님의 법문이었다.

혜국 스님은 "참선은 이해가 아닌



왼쪽부터 여성불자108인회 김인숙 회장, 이인자 고문 등 80여 명의 여성불자가 입제식을 봉행하고 있다.

체험을 통한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라며 "마음의 번뇌방상을 비우는 순간 그대로 부처다. 내가 깨닫고 부처가 아니라 본래 내가 부처임을 알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연기법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다. 매 순간 내 마음 상태를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라"고 당부했다.

박광서 교수는 "우리나라 여성불자 리더인 여러분과 정치, 사회, 지식인들이 불교를 제대로 모르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미래를 위한 중

교인 불교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종교 편향이 없는 국가를 위해서는 불교지도자들의 인식전환과 실천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시대와 호흡하는 인재양성, 타종교가 일으키는 사회적 물의에 대해 당당하게 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불자108인회 여름수련회는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 2일로 진행됐으며 회원간 교류의 시간, 여성불자108인회 사업방향 등이 논의됐다.

여성리더십교육 졸업생들은 혜국 스님의 천도재 영가법문 동참, 리더십 심화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행사를 통해 참회와 발원, 현재의 나, 가족 나아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한국여성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승만보살이었다.

이상언 기자

9일 열리는 행사에는 20세기 한국 불교를 빛낸 재가불교의 표상인 대원 장경호, 해안 서경수, 백봉 김기추 거사를 통해 그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펼친 재가불교운동을 조명하게 된다.

장경호 거사(1899~1975)는 대한 불교진흥원 설립자이자 동국제강을 창설한 사업가다. 입적을 앞둔 1975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30여 억원을 위탁하며 불교의 중흥을 꾀했던 대표적인 재가불자다.

행사에서 김재영 교수(청보리회 지도법사, 동방불교대학)는 주제발표 '장경호 거사의 대한불교운동'에서 "대한불교의 창립정신은 생활선, 나눔의 수행정신과 쉬운 불교를 위한 개혁, '전 국민적인 포교운동'을 추구해 왔다"며 "장경호 거사가 생애를 던져 추구한 대한불교운동은 입적 이후 대한불교진흥원들을 통해 즐거차게 추구하고 있는 일련의 불사들을 포괄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김 교수는 "대원운동의 새로

운 중장기를 맞아 대원대학을 졸업한 인재와 법사 4000여 명이 중심이 돼 대원위원들과 불교계의 공익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익위원들로 구성되는 가정 '대원불교운영위원회'를 진흥원 이사회의 산하자문기구로 설치해 대원 주체의 결집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김광하 대표(작은손길)는 '백봉 김기추 거사의 삶과 사상'을 발표한다. 김 대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백봉 선생의 주변이야기와 삶과 사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기추 선생(1908~1985)은 독립운동가로, 참선수행을 통해 생활 속의 불교를 주장하는 등 현실에 바탕한 살아있는 불교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김광하 대표는 발표에서 무위당 이원세 선생, 백은 변동조 선생 등이 백봉 선생과 겪었던 일화, 인생 선언문, 재가선원 보림선원의 일상과 인생을 소개한다.

김광하 대표는 "얕은뱅이 부처는

없다'고 말했다. 김기추 거사는 스스로 학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끊임없이 좋은 방편을 찾아내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 유마거사의 화현"이라며 "선생의 뜻을 이어받는 길은 스승의 행적이나 말을 모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넣은 아집과 미망을 깨울 해안과 새로운 방편을 기르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 교수(영남대)는 서경수 거사(1925~1986)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서경수는 다면불(多面佛)같은 사람"이라며 "학문과 수행의 결합으로 인도사상을 배경으로 한 폭넓은 연구에서도 불교를 문헌적·역사적 연구로 박물관적 대상으로 낙락시키는 근대 서구 불교학 방법론의 모순을 극복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이 교수는 "호국 불교가 지닌 근본적 종교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서경수 교수"라며 그동안 입적에 비해 저평가돼 있던 서 교수를 집중

원(동국대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이 '불교 콘텐츠(계시물)의 대중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활용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총장은 "불교 포교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포교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며 "불교가 한국문화의 중추이자 문화발전의 추진동력으로 명실상부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 736-5583 이상언 기자

## 조계사에 장학금 약정 공플란트 치과

무로 시술 봉사로 자비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종로구 공플란트(원장 최우환) 치과병원은 9월 3일 조계사에 장학금 약정서를 전달했다. 협약식에서 최우환 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매년 500만원씩을 조계사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 콘텐츠에서 새 패러다임 모색 풍경소리, 10일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전국의 지하철을 중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풍경소리(대표이사 회장 해자, 도선사 주지)가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공간, 매체, 콘텐츠'를 통한 포교의 지평 확대'를 주제로 9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박수호·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가 '포교공간으로서의 지하철 역사와 새로운 포교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박경준 교수(동국대)가 '풍경소리의 내용과 형식'을 △박정현 교수(고려대)가 '풍경소리 활동을 통해본 불교문화운동의 지평 확대'를 △이재수 연구위

### 신행거사란

- 혜국 스님의 '신심명' 강요=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9월 9일부터 10개월간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혜국 스님의 <신심명(信心銘)> 강의를 실시한다. 혜국 스님은 총주 석종사 선원장·전국선원수좌회 대표로 일생을 참선 정진만 해 온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승이다. 동참비는 20만원으로 선착순 120명 접수 받는다. (02)735-2428
- 재가자 하인거 산철방부 '위없는 바른 수행'=봉화 축서사는 9월 19일~11월 1일 재가자보살선원인 보현선원에서 재가자 하인거 산철방부 '위없는 바른 수행'을 실시한다. 참가비는 30만
- 사마타-위빠사나 집중수행=보리수선원은 9월 11~20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사마타-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수행은 아나빠나사미 좌선수행으로 진행되며, 하루 한 차례 평등 스님과 개인 인터뷰를 통해 수행점검을 받을 수 있다. 수행 참여는 일정 중 두 번의 주말수행과 주중 수행신청도 가능하며 1일 수행보시금은 1만 5000원이다. (033) 333-8429

# 제2회 선운문화제 선운사 1500년, 그 역사의 향기를 말하다

일시 \_ 2009년 9월 19 ~ 20일 (토.일)  
장소 \_ 고창 도솔산 선운사

## 주요 행사

19일부터~

1. 전통차 시음 - 선운산 10만평의 녹차밭의 향기  
일시 : 9월 19일 ~ 20일, 장소 : 만세루
2. 농산물직거래 장터 -고창지역 유기농산물과 특산물 주민 판매  
일시 : 9월 19 ~ 20일, 장소 : 사천왕문 앞
3. 한지공예전 - 검단스님이 남겨주신 유산(소금, 한지, 솜)  
일시 : 9월 21일 ~ 28일, 장소 : 만세루
4. 박물관 전시회 - 석전 영호대종사 유물전  
일시 : 9월 19일부터, 장소 : 선운사 박물관

19일(토)

1. 산사음악회 - 선운사의四季  
일시 : 9월 19일 저녁 7시, 장소 : 선운사 특설무대
2. 보은염 이운행사 - 1500년을 이어온 은혜 깊은 소금이야기  
일시 : 9월 19일 오후 1시, 장소 : 선운사 특설무대  
내용 : 이운행사, 육법공양

20일(일)

1. 선운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  
일시 : 9월 20일 오후 3시, 장소 : 선운사 특설무대
2. 학술회의 - 석전 영호대종사 60주기추모 학술대회  
일시 : 9월 20일, 장소 : 선운사 승가대학 큰방

후원 \_ 고창군, BBS 광주불교방송

주최 \_ 대한불교조계종 제 24교구 본사 선운사

산사음악회 (선운사의四季) - 9월 19일 저녁 7시

이 선 회    오 정 해    소리세    팝스 오케스트라